국립공원관리공단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숲 체험을 통해 나를 표현하기		
해 설 주 제	국립공원 자유학기제 직업체험-환경교육전문가		
해 설 재 료	국립공원 영상, 관련ppt, 체험활동 준비물품 등	소 요 시 간 (′)	120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일 정	시 간	프로그램	운영자	비고
3월~11월 중 운영	10:00~10:20	• 만나서 반갑습니다! – 서로 간 인사, 프로그램 일정 소개 – 지난 회 차 상기하기	김주승 외 1명	
	10:20~10:40	• 국립공원 환경교육전문가 –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내용 알기 – 국립공원 환경교육전문가와의 만남	김주승 외 1명	
	10:40~11:50	• 국립공원 환경교육전문가 체험 –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환경주제로 토론하기 – 내장산국립공원 자원조사·모니터링 체험 – 모둠별로 주제를 정해 자연해설프로그램 발표	김주승 외 1명	
	11:50~12:00	• 소감나누기 • 프로그램 마무리 및 인사, 다음 차시 안내	김주승 외 1명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숲 체험을 통해 나를 표현하기
주 제	국립공원 자유학기제 직업체험-환경교육전가 체험

해설 주제	장소	세부 시나리오
도입	내장산 국립공원 일원	▶ 서로 간 인사, 프로그램 일정 소개, 지난 차시 상기하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번째 시간이네요, 자꾸 보니까 볼 때마다 반가운 기분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오늘 일정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전 시간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한 번 기억해볼까요? 너무 힘든 기억만 있나요?(질문과 답변) 외래식물도 제거하고, 국립공원 정화활동도 했었죠? 또 캠페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국립공원을 자연을 보호하자라고 알리기도 했고요.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걸 느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직업을 체험한다고 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네! 바로 환경교육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체험을 해 볼 건데요, 환경교육이 왜 중요한지, 요즘에는 어떤 문제들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다들 운동화와 편한 복장으로 왔나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직업 체험	내장산 국립공원 일원	우선 환경교육이란 뭘까요? 환경교육이란 환경에 관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환경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련성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인식을 기르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하는지 알고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책임감을 심어 주는 게 목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도 환경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 차가 지날수록 자연을 사랑하는 보호하는 방법들을 알아가고 있잖나요?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환경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지도 알아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한가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제돌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나요? 제돌이는 2009년 5월에 불법포획 된 남방큰돌고래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불법포획이 된 제돌이와 그 친구들은 돌고래쇼 공연업체에 팔려갔는데요, 이후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져 공연을 해오다 2012년 불법포획으로 잡혔다는 게 밝혀지면서 2013년 7월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아무 생각이 없나요? 좀 전에 얘기 했듯이 포획이 금지된 동물을 포획해 이를 사람이 돈을 위해 이용한 이야기인데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할 토론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바로 “동물원을 과연 필요한가?”입니다. 친구들 동물원에 가봤나요? 동물원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동물들 외에도 외국에 사는 동물들을 데려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꾸며놓은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물원에 대한 생각을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면 동물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줘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한다. 또는 요즘에는 동물원이 동물의 종을 보호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동물원은 필요하다. 또는 동물원은 필요 없다. 두 진형으로 나누워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기본 적인 규칙은 토론이 끝난 후 거수를 해서 자기 진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 하는지를 보는 토론이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가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발언권은 손을 들고 진행자인 제가 지목을 했을 경우에 발언권이 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없어야 합니다. 크게 이 세 가지의 규칙을 가지고 토론을 할 텐데요, 지금부터 약 15분간 관련된 자료를 찾고 정리해서 토론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럼 준비 시작! - 토론은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양쪽 진영에 나눠 주기도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한 정보검색으로 토론이 매끄럽고 풍부한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상대 진형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자제시킴으로서 건전한 토론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손을 들어서 양쪽 진형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해볼까요? 동물원은 사람에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볼까요?, 반대로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여전히 양쪽 진영의 비율은 비슷한 것 같네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에게 이로움과 편의를 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에 간섭하는 것들은 동물원 이외에도 많은데요, 예로 들면 매머드를 복원한다던지,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던지, 산을 뚫어 터널을 만든다던지 등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서로의 이권과 이익, 가치관에 맞물려 복잡하게 엉켜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정답은 이거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우리의 후손들만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좋던 안 좋던 간에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뉴스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이런 환경문제를 보았을 때 한 번 더 눈길을 주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전에 우리 식물학자, 동물학자 체험을 하면서 자연 조사를 했었죠? 그 조사를 다시 한 번 할 건데요, 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식물, 동물에 연관 있는 전설이나 이야기 등을 포함하여 짧은 해설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 번 저와 함께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했잖아요? 저와 함께 한 시간들을 기억하면 어떻게 했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작할 때는 인사와 자기소개를 또 안전교육을 빼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버리지 않기와 정해진 탐방로로만 다니기 등등이요, 두 번째로 조사한 자원에 스토리를 입혀 설명을 하는데요, 이 또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기 마름이라는 수생식물이 있습니다. 마름은 불에 떠서 사는 부유식물인데요, 이 식물의 특징을 쉽게 얘기 해드릴게요. 마른은 숫자 “1”네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1은 1년만 사는 한해살이 식물이고요, 두 번째 1은 1년에 1번 꽃이 피고요, 세 번째 1은 그 꽃의 지름이 1cm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1은 꽃이 하루만 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입히거나 관련된 이야기나 전설을 얘기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한 후에 마무리를 해야겠죠? 마무리는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마음을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조별로 발표자, 자원 조사자, 정보수집가 등으로 역할분담을 잘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협력해서 싸우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 주길 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식물을 채취하거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 알죠?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조사 후 발표를 한 뒤 해당 해설에 대한 느낀 점이나 잘못된 점을 얘기 해주고 가장 기억에 남는 해설을 하나 선정해 보는 등 학생들의 흥미를 계속해서 유발한다.
마무리	내장산 국립공원 일원	이렇게 오늘은 환경교육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즐거우셨나요?(질문과 답변) 우리 주변에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너무 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문화가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 편의 시를 좀 들려주려 합니다. 나태주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뭔가 간질간질한 느낌이 드는 시인 것 같은데요, 자연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고 그 것을 오래 동안 보면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립공원의 안전관리전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그럼 인사로 마무리 할까요? 차렷! 인사!